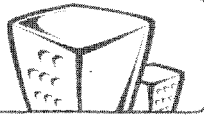


농림수산물부



배달용 치킨, 소금, 오리고기 등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입법예고

농림수산물부는 금년 8월 5일부터 적용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년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 김치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음식점(65만개)에 대하여 영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현재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 또한,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와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 특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주류 원산지표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주세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8월 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 가공식품의 경우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 1가지에 대하여,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상위 2가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신설 규정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산지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이하 수입산

- 이라 한다)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원산지 표시 란에는 “수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전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특산물 생산 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 게시판 등에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 란에는 “수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 “수입산”과 “국산”을 진열 판매하면서 “수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 “수입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산”,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하는 대답하는 경우
-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된 “수입산”을 주는 경우
- 또한,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기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이외에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원 범위내였으나 200만원 범위 내로 확대된다. 또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신설하였다.
- 통신판매의 경우 종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원산지 표시에서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처벌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원산지 표시제의 개편은 대상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바뀌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흩어져 있던 원산지 관련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금년 2월 4일자로 제정된 법률이다.

참고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

1. 추진경과

-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도입(1994)
 - 품목확대 : (1994)220품목→(1999)439→(2002)442→(2009)531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운영(2008. 7)
 - 대상 : 5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정 (2010. 2. 4)

2. 원산지 표시제 확대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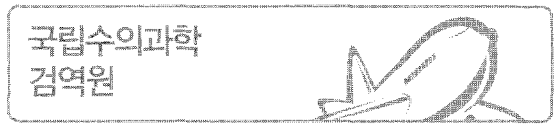
- 쌀·배추김치류 원산지표시 적용대상 영업소 확대(2010)
 - (당초) 100㎡ 이상 음식점→(확대) 모든 음식점
- 음식점표시 대상품목 확대
 - 대상품목 : 배달용치킨, 오리고기, 흑염소고기, 기타 품목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 농산물 및 가공품 확대 : (2009) 531개→(2010)

600→(2015) 650

- 막걸리, 청주 등 주류 및 식용소금에 대한 표시제 도입(2010)

3. 향후 추진일정

- 확대 시행일 : 2010. 8. 5



신종인플루엔자 돼지용 백신 및 진단법 개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009년 4월 북미 발생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돼지용 백신(예방약)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신종인플루엔자는 2009년 5월 캐나다 양돈장에서 처음 확인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발생하여 이동제한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는 2009년도에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돼지 신종인플루엔자 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17개 양돈장에서 확인되어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검역원은 2009년 하반기부터 돼지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개발에 착수하여 2009년 12월에 백신 제조용 원종균(Master Seed) 생산을 완료하였고 올해 5월 31일 특허출원을 완료하였다.

또한, 검역원은 앞으로 혹사라도 신종인플루엔자가 돼지에 확산되는 등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백신 10만두 분을 생산·비축하였다.

아울러 향후 국내 양돈장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제조기술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체 이전이 완료되면 월간 최대 240만두 분의 생산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News

아울러, 검역원은 백신개발과 함께 돼지에서 '신종인플루엔자'와 기존 '돼지인플루엔자'를 감별할 수 있는 진단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진단법은 유전자 감별 진단키트(Multiplex RT-PCR Kit)로 검역원에서는 작년 7월부터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하여 올 5월 18일 특허 출원하였다.

본 진단키트는 WHO에서 사람의 신종인플루엔자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전자 검출 진단방법과 유사한 민감도를 갖고 있다.

또한, 4시간 이내에 돼지 신종인플루엔자 진단이 가능하여 올해부터 국내 양돈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100개 과제 확정

정운찬 국무총리는 6월 7일(월) 경기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2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해양부2차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등 농산어촌 관계자(농업·농촌: 50개, 수산·어촌: 12개, 식품: 17개, 산림: 21개)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의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100개 과제중 56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굴한 과제이며, 발굴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소관부처에 검토 의뢰 및 협

의·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 확정되었다.

농진청은 금년에 전직원이 2인 1조가 되어 농촌규제 1,000개 발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5월말 현재 867개를 발굴한바 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농림어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어업은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염두에 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를 마친 정운찬 총리는 인근의 버섯재배 농가(한울타리 영농조합법인 대표 성대경)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버섯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이었던 버섯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 간소화, 팽이와 양송이 버섯의 표준등급규격 기준 완화 등이 100개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김재수 농촌진흥청장은 연초부터 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발굴한 각종 규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농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리플릿,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일선현장과 직접 접촉하는 각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농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농촌현장 규제개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총리실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당부하였다.

[문의]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 박성승,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선희 031-299-2936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연재] 애니멀사이언스 콘서트 13.가금과
가금과의 연구성과와 연구방향**



▲서옥석 가금과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는 농업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블루오션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화, 전업화 돼 가고 있는 양계, 오리산업의 특성상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가금종자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고품위 가금산물 생산, 녹색 가금사양기술 개발, 가금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확대, 지역별 맞춤형 부산물 활용기술 개발, 친환경 안전 가금산물 생산, 오리산업 지원기술 개발 등이 가금과의 주요업무이다.

가금과는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FTA대응기술개발, 국책, 현장접목연구 등 총 13과제 23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대형 닭고기 생산확대를 위한 육계농가 제반 비용 지원' 등 시책건의 8건과 '발효전용 류코노스탁 멘센테로이데스 A5 균주의 활용방법' 등 영농활용기술 31건, 'LED를 이용한 계사의 점등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기' 등 특허출원 4건, '축사환기와 연계된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으로 특허등록 4건, '지열냉난방시스템' '우리맛닭' 등 기술이전 9건, 국내외 논문게재 17편 및 '산란계의 유도환우가 주요장기와 혈액성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논문게재 및 발표 50편 등 산업적 실용화 기술이나 학문적 성과에 있어서 많은 결과를 얻었다.

• 재래닭 품종복원

일제 강점기 및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멸실된 한국 재래닭의 품종복원을 위해 1994년부터 국내 여러 대학과 농진청 닭 육종 전문가 연인원 84명이 공동으로 추진한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 연구사업을 통해 7계통이 순수 복원됐고 이 모본을 이용해 가금과 연구진을 주축으로 3원교잡 토종닭 1호를 출시했다. 이렇게 육질특성이 우수하면서도 성장이 빠른 토종닭을 개발해 우리맛닭이라고 상표등록했다. 차별화된 고품질 닭고기 생산·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종계농장, 실용계농장, 전문외식업체가 수평계열화로 연계되는 형태로 산업이 확장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우리맛닭' 종계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6개도, 8개 전문 종계장에 25,850수를 분양하였고, 더불어 우리맛닭 '종계' 및 '실용계' 생산기술 지침서를 발간해 보급했다.

• 계사 냉난방시스템 개발

양계산물을 생산시 에너지를 절약하고 녹색 양계를 실현하기 위해 지열을 이용한 계사 냉난방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축사 환기와 연계된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특허 등록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고 보다 빠른 현장보급을 위해 축산원 내 순계사에서 정밀시험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북 진안에 소재하는 5만수 규모의 하림계열의 무창형 육계사에서 농장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80%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어 시책사업화해 농가에 조기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도부터 생산이 중단되는 백열전구를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 LED 점등기술을 개발했고 LED를 이용한 계사의 점등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기'를 특허 출원(출원번호 : 10-2009-90717)하고 점등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등록했다.

News

• 대형육계 생산기술 개발

국내 육계는 소형계 위주로 출하하고 있어 수출 및 부분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지만 1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부분육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비도 29% 절감할 수 있는 대형육계 생산기술을 개발했으며 기존의 1.5kg의 소형계로 출하시 가슴육이 210g 밖에 생산되지 않지만 43일령에 2.9kg의 대형육계로 출하시 가슴살은 635g 생산이 가능하다.

630만톤에 달하는 농산 부산물을 활용해 가능성을 갖춘 브랜드형 무항생제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미생물제제를 접목한 발효사료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사과발효사료 제조방법 및 발효전용 균주를 특허 출원하고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해 육계의 생산성이 7~10%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 종오리 · 실용오리 분석

최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오리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오리산업 생산액이 1조 1,500억으로 7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 산업 · 연구 간 연찬회를 2회 개최했으며 국내사육 종오리와 실용오리의 품종별 생산성을 분석하였으며 오리 고기가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불포화지방산도 포화지방산보다 1.62~1.68배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리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 · 홍정민 기자 · smart73@allnews.co.kr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 · 관세청, 유해식품 수입 · 유통차단을 위한 MOU 체결

사전 정보공유, 공동단속 등 업무공조체계 강화, 식탁 안전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부정 유통 수입식품등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해식품등의 정보공유, 불법유통 공동단속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통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 · 부정식품 등 반입시 즉각적인 「통관보류」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 ·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입신고의 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이 줄일 수 있다.

식약청과 관세청의 이번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

■ 불법유통 식품등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예방

- 관세청은 식약청이 제공한 부정 · 유해식품등의 정보를 세관검사 과정에 활용하여 전국 세관에서 즉각 통관보류 등 조치

■ 비식용 물품의 불법유통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 식용으로 불법 유통우려가 있는 비식용 신고 물품의 실시간 통관정보 공유로 사후관리 강화
- 식용으로 불법 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유해식품의 신속 회수 · 폐기로 식탁 안전 확보

■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한 식품검

사 및 통관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 식약청의 식품등의 세관의 수입신고를 통관단 일창구(Single Window)에서 One-Stop 서비스 가능
- 수출입업체는 식품등 수입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처리시간, 창고료 등 비용 절감 가능

■양 기관은 부정·유해식품의 수입·유통방지를 위하여 긴밀한 협조



21세기 한국의 미래와 비전'으로 한완상 전 부총리 특강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에서는 6월 14일(월) 직원의 전문지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한국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한완상 전 부총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였다.

한완상 부총리는 강의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가혹한 시기를 지나 이제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고 있으며, 금융위기의 난관을 제일 먼저 헤쳐 나가는 등 한국에 대한 세계의 평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시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해주고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축산물HACCP기준원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의 원칙을 세우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원칙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완상 전 부총리는 미국 에모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 문리대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상지대학교 총장,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한적십자사총재를 역임했다.



해외 식품업계 큰손들 "코리아로!"

aT, 국내 최대 농식품 수출상담회 개최

일본의 이온그룹, 홍콩의 DCH 등 연매출 1억달러가 넘는 해외 대형 식품업체 바이어들이 한국에 모인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21개국 130여 명의 식품 전문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수출업체와 연결하는 국내 최대 농식품 수출상담회 'BUY KOREAN FOOD 2010'을 9~10일 이틀간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일본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이온그룹, CGC재팬, 로쇼쿠를 비롯해 미국 최대 수산물 수입벤처인 트루월드(True World), 홍콩의 DCH, 싱가포르 NTUC 등 연매출 1억달러가 넘는 40여개 해외 수입업체가 대거 참가한다. 특히 그동안 aT와 MOU를 체결한 일본의 코프삿포로, 미야기생협, 미국의 H마트, 중국의 RT마트 등 12개 대형유통업체도 신규상품 발굴을 위해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다.

이들은 CJ제일제당 등 국내 195개 식품수출업체와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딸기·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과 김치·인삼·전통주 등 가공식품, 최근 수출국

을 넓히고 있는 활넛치·김·미역 등 수산물까지 수
출상담 품목도 매우 다양하다.

aT는 상담 시너지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상담회 현장
에 국내 주요 수출농식품을 시음·시식할 수 있도록
한 '식품기업 홍보관' 과 수출상담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의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한 'aT 콜렉션
관' 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이틀째인 10일(목)에는 바이어들이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는 맞춤형 옵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0개 국내 식품 대기업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자사 제
품을 설명하는 '식품기업 상품설명회', 경남·북 및
전북 지역의 버섯류, 파프리카 등 우리 농수산물 생산
현장을 둘러보는 '신선 농산물 현장방문' 과 '가공식
품 현장방문' 등 관심 있는 품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수출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장배 aT 사장은 "5월 현재 농식품 수출액은 21억달
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했다"면서 "공격적
인 수출전략을 통해 하반기 대전환점을 마련한다면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인 64억달러 달성은 물론 국가
수출산업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aT 사이버거래소는 올해 5개 시·도 시범거래를 시작
으로, 내년에 10개 시·도 2,000개교, 2012년 16개
시·도 4,500개교로 참여를 확대하고 2013년에는 전
국적으로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
이다.

윤장배 aT 사장은 "aT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유통
전문기관으로서 친환경·우수 농산물 인증정보를 제
공하는 등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으로 지자체별 농수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 농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18대 하반기 국회 농식품위 위원 프로필



18대 국회 하반기 2년을 이끌어 갈 농림 수산식품위원회가 구성됐다.

전체 상임위원수는 19명이다.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됐다. 한나라당은 우
선 10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1명은 7월28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이후 총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국회와 비교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배정인원은
각각 1명씩 늘었고, 비교섭단체는 2명이 줄었다. 후반기
첫번째 농식품위 회의는 18~27일 10일간 열린다.

한편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 6선의 한
나라당 박희태 의원을 선출했다. 또 한나라당 정의화
(4선)·민주당 홍재형(3선)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
출하고, 18개 상임위원장단도 확정했다.

한나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김무성
▲정무위원장 허태열 ▲기획재정위원장 김성조 ▲외
교통상통일위원장 원희룡 ▲국방위원장 원유철 ▲행
정안전위원장 안경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장 정병국 ▲국토해양위원장 송광호 ▲정보위원장 정
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영 ▲윤리특별위원
장 정갑윤 의원 등이다.

민주당 몫 6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우
윤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변재일 ▲농림수산식품
위원장 최인기 ▲지식경제위원장 김영환 ▲환경노동
위원장 김성순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 의원 등이
선출됐다. 또 자유선진당 몫인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이재선 의원이 확정됐다.

농민신문 · 오영채 · 편집 · 노현숙 기자 · karisma@nongmin.com

계재 순서는 소속 정당별, 성명은 가나다순.



〈위원장〉 최인기

(민주당, 전남 나주 · 화순) 위원장

정통 내무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김영삼 정부 때 농림수산부 장관, 김대중 정부에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다. 당은 물론 행정부처와 농업계 전반에 폭넓은 인간관계를 자랑하고 있다. ▲1944년생 ▲전남 나주 ▲경기고, 서울대 행정학과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 ▲농림수산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강석호

(한나라당, 경북 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전우회와 태권

도협회 · 대한산악연맹 · 족구연맹 등에서 임원을 맡는 등 사회단체 활동이 활발하다. 좌우명은 '짧은 인생 지역과 조국을 위해' 이다. ▲1955년생 ▲경북 영덕 ▲중동고,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벽산학원(포항 영신중 · 고) 이사장 ▲당 원내 부대표



김성수

(한나라당, 경기 양주 · 동두천)

15대째 양주에 살고 있는 토박이로 양

주 향토역사에 아주 밝다. <양주문화기행>이라는 저서도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농업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1953년생 ▲경기 양주 ▲청량중고, 고려대 교육학과 ▲양주 청년회 초대 회장 ▲경기도의회 의원 ▲당 민생탐방단 낙농대책팀장



김학용

(한나라당, 경기 안성)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치인의 꿈을 꾸

어왔다. 매년 6월 초순, 6·25 기념 교내 웅변대회가 열리면 김의원의 열변을 듣기 위해 모내기하던 동네 어른들이 운동장으로 모이곤 했던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1961년생 ▲경기 안성 ▲평택고, 중앙대 경제학과 ▲경기도의회 부의장 ▲천일염 세계화포럼 대표



성운환

(한나라당, 경북 상주)

검찰 특수부 출신의 정치인으로 신의

와 책임정치를 신조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중앙대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다 정계에 입문했다. 강직한 성격으로 논리가 확고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56년생 ▲경북 상주 ▲경북고, 한양대 법대 ▲사법연수원 교수 ▲당 원내 부대표



신성범

(한나라당,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대학 시절 운동권 활동 중 제명 당한

뒤 군에 입대했다. 방송사 입사 전에 3년 동안 민족과 세계연구소 사무국장을 역임. 방송사 입사 후에는 국회 출입 등 주로 현장기자로 활동했다. ▲1963년생 ▲경남 거창 ▲거창고, 서울대 인류학과 ▲KBS 기자 ▲KBS 모스크바 특파원 ▲당 원내 대변인



여상규

(한나라당, 경남 남해 · 하동)

서울대 법대를 수석졸업한 수재. 참여

정부 실세였던 김두관 후보를 누르고 당선, 화제를 모았다. 여의원의 당선으로 남해가 아닌

News

하동지역에서는 23년 만에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 1948년생 ▲경남 하동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국세심사위원



윤영

(한나라당, 경남 거제)

부산고를 수석합격한 수재. 행정고시 합격 후에는 경남도청 등에서 행정업무 맡았던 관료 출신이다. 거제시장 보궐선거에서 낙선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를 딛고 일어섰다. ▲1955년생 ▲경남 거제 ▲부산고, 부산대 정외과 ▲행정고시 합격(26회) ▲경남 거제시 부시장 ▲당 대표특보



정해길

(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

1982년부터 10여년간 고교 교장을 역임한 뒤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 초대 민선 의성군수가 됐으며 그 뒤 2006년까지 내리 3선을 했다. 취미는 테니스이며,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1939년생 ▲경북 의성 ▲경북고, 계명대 사학과 ▲의성군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당 실버세대위원장



조진래

(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

사법고시 합격 후 고향 근처인 창원으로 내려가 농민단체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해 무료 변론에 힘을 쏟았다. 선거공약으로 농축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1965년생 ▲경남 함안 ▲연세대 법학과 ▲변호사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황영철

(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

2008년 7월 첫 세비로 받은 돈으로 암 송아지 4마리를 구입, 농업을 위해 써 달라며 지역축협에 사육을 위탁했다. 현재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모임인 '민본 21'의 공동간사를 맡고 있다. ▲1965년생 ▲강원 홍천 ▲홍천고,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도의회 의원 ▲당 미래연대 대표 ▲당 행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강봉균

(민주당, 전북 군산)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이면서 정치적 감각도 탁월한 3선 의원. 사범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서울대 상대에 늦깎이로 입학했으며, 행정고시 합격으로 관가에 발을 들여놓았다. ▲1943년생 ▲전북 군산 ▲군산사범고, 서울대 상대 ▲정보통신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16~18대 국회의원



김영록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다. 1978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줄곧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해 온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1955년생 ▲전남 완도 ▲건국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합격(21회) ▲전남 목포시 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유남

(민주당, 제주 제주시)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발농업직 불세 확대를 최대 농정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도 제주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고 있

Government & Agency

다. 국수 등 면 종류를 좋아한다. 농정에 밝은 재선 의원이다. ▲1955년생 ▲제주 북제주 ▲제주대 경영학과, 경희대 대학원 ▲제주도의회 부의장 ▲국회 농식품위 간사



김효석

(민주당, 전남 담양·곡성·구례)

중앙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다 16대 국회 때 정계로 진출했다. 경영 관련 저서도 8권에 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회에서 인정하는 정책통이다. ▲1949년생 ▲전남 장성 ▲광주제일고, 서울대 상대 ▲행정고시 합격 (11회)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16~18대 국회의원



정범구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으로 얼굴을 알린 정치인이다. 16대 총선 때 당선된 후 17대 국회에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18대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농식품위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1954년생 ▲충북 음성 ▲성동고, 경희

대 정의과 ▲당 쌀값폭락대책특별위원장 ▲당 홍보미디어위원장



류근찬

(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

KBS 9시 뉴스 앵커로 낮익은 얼굴. 방송 앵커 출신답지 않게 소탈하며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농업에 대한 이해가 넓은 편이다.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것을 좋아한다. ▲1949년생 ▲충남 보령 ▲서울 성동고, 서울대 독어교육과 ▲KBS 보도본부장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송훈석

(무소속, 강원 속초·고성·양양)

검사 시절 강직한 성격으로 부정부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클린 송훈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치권의 영입 제의로 정계에 입문했다.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1950년생 ▲강원 고성 ▲경동고, 고려대 행정학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15·16·18대 국회의원

